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익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 양재웅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10월은 2009년을 준비하는 출발선

요즘 우리는 금요찬양집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전통과 예식, 축제와 역사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역 6:14) 이 은총에 따라 우리는 더욱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특히 10월은 2009년을 준비하는 출발선입니다. 10월의 정기당회는 2009년 교회일꾼을 결정하는 인사당회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 각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믿음의 결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 지난 6개월 간의 교육을 마친 피택자들의 고서와 면접이 있으며, 장로로 피택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의 예언과 성취에 대한 주제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후에 피택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으며, 그 주간 금요일에는 2008년 마지막 청지기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배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엡 3:12)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10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0월에 예정된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며 대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 1:6)

10월 교회 일정

- 11월(토) 당회고시 및 면접(14:00)
- 15월(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4부예배 후, 여전도회)
-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7월(금) 장로피택자 주제발표(금요찬양집회 시)
- 18월(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22월(수) 장로·안수립사·권사 임직예배(수요2부예배 시)
- 24월(금) 제3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 26월(주) 종교개혁주일, 제5차 학습 및 세계식(찬양예배 시)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13. 율법 없이 살 수 있을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 위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것이 율법적이고 어떤 것이 율법적이 아닌가? 율법적인 삶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실현가능해질 수 있고 은혜의 삶의 근원은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한 집에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같이 산다. 한 사람은 그가 듣는 음악을 향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다른 한 사람은 듣지 못함으로 걸로만 상대방의 행동을 흉내 내고 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참 기독교의 차이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듣는 음악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다. 율법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딤후 2:11~13)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산다.(갈 5:16; 엡 5:18) 성령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기 때문에 죄와는 멀어진다.(요일 5:14~15)

우리는 신약에서 보여주는 삶과 내가 경험하는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은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가 하면 "나는 사랑을 모른다,"고 고민하면서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도 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은 기독교의 기본이다. 우리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용서,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이미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롬 5:8; 요일 4:19) 고린도전서 13장 4~8절을 사랑을 측정하는 표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의 경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설명해 주셨음을 믿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존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사랑'과 '하나님'을 바꾸어 넣어서 읽어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알 수 있다.(요일 4:8)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도 들게 된다.(요 13:34; 엡 4:32)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에 인간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 역시 같은 것임을 보게 된다. 인간은 모두가 용서,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한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요구하고 있다. 사랑받기 원하는 자들이 사랑의 권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가 냉랭하고 차갑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자기 삶의 전체에, 특히 모든 것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사랑을 이해할 때에 '성령충만'에 대한 이해도 생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권해야 한다.(엡 3:16) 성도들에게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함이다.(엡 3:17~19)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 진다는 말씀의 실질적인 의미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뜻이다.(엡 5:18)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마음과 몸을 다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 된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도 없으며 이를 위하여 투쟁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갈 5:17) 육체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와 육체의 자랑과 이기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명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말씀은 "육체를 깨닫게 하려 명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갈 5:16)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육신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선언하여 주셨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어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 교만이 꿈을 거둔다. 이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갈 5:13~14, 6:2) 밖으로 보이는 규정이나 예법을 좇아 노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르라. 예수님은 친히 행하신 완전한 사랑의 삶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롬 13:10; 마 5:17)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것이다. 죄인 된 우리 안에는 나누어 줄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이 다른 자들에게 전달되는 도구가 되었을 때에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체험하게 된다.(요 13:35)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새 계명이 날마다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요 13:34) 아멘.

SEEK THE LORD

⁽⁶⁾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⁷⁾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⁸⁾“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o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⁹⁾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saiah 55:6~9)

The Lord God has been seeking sinners since the Fall, “Then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and said to him, “Where are you?” He said, “I heard the sound of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myself.” (Gen. 3:9~10) Jesus said,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The Lord God is a seeker and human beings are also seekers. What do we seek? We seek wealth to spend on ourselves, we seek recognition to satisfy our pride, we seek thrills to fill our sense of emptiness, and we seek attention to fill the void in our lives. The Word of God, as mentioned in today’s Bible passage, advises us to seek the right thing,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v. 6) As Christians we need to stop running after worldly ideas and things and start following the Lord. It is so important to seek the Lord in everything.

God is the initial seeker. His love moves Him to seek sinners. His love unites us to Him. When you seek the Lord, His love comes into your life. His grace makes this search worthwhile and possible. The cross proves God’s love,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 2:8) Jesus came to redeem lost sinners. His death on the cross paid for our sins,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All of us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but the Lord has caused the iniquity of us all to fall on Him.” (Is. 53:5~6) God’s love flows through the gospel message, “.....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Cor. 15:3~4) Jesus was born into this world, worked, died, resurrected, and will return. All Christians are called to herald this message of seeking God’s love. God is seeking sinners, so sinners need to respond to His call. They need to seek Him. They need to hold nothing back, and just surrender all to Him.

Sinners need to throw out all their garbage and only seek

after the Lord,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v. 7) If you try and hold on to something, including your methods and reasoning skills, you will not make it. You must give everything up and seek God only. The wide road leads to destruction. It beckons you daily and offers you pleasure now. This road promises to deliver much happiness, but it is the ultimate betrayer and trickster. The dreams it gives turn into nightmares! Those who finally become sick of its sinful nature can seek the Savior. Those who are tired, burdened, and lost can seek Jesus. He will help you walk the narrow path that leads to heaven. If you can’t even walk, He will carry you. He will help you, protect you, and never forsake you. He will always love you!

The seeking Savior offers salvation to those sinners who are seeking Him. How wonderful is that! You have to appreciate and admire God’s amazingly gracious love that unites dirty sinners to Holy God. He offers mercy. He forgives abundantly. How is this possible? God said,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or are your ways My ways,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vv. 8~9) God’s grace is greater than our sin. God told David, “I took you from the pasture, from following the sheep, to be ruler over My people Israel. I have been with you wherever you have gone and have cut off all your enemies from before you;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me, like the names of the great men who are on the earth.” (2Sam. 7:8~9)

My dear friend, God is still seeking sinners. Please respond to His love and be saved today. Jesus calls ou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t. 11:28) Haven’t you had enough of sin? Aren’t you sick of it yet? The joy that comes from knowing Jesus is better than anything this world can offer. His love surpasses all. If you are seeking truth, real love, happiness, and the purpose of life, then seek the Lord and you will find the answers. Seek the Lord and your soul will find eternal life. Amen. 

다음 주일 설교

여호와를 찾으라

⁽⁶⁾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⁷⁾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⁸⁾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⁹⁾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6~9)



김성관 목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9~10)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안락한 삶을 위해 부해지길 원하고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허탈감을 매우기 위해 스티를 즐기기도 하고 공허한 삶을 채워 줄 누군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마땅히 찾아야 될 것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6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물질을 좇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법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귀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골 2:8)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루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5~6)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전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전 15:3~4)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셨으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죄인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썩어질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자

죄인들은 썩어질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함

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7절)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의 경험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집중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 길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며 패락을 제공합니다. 그 길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짓과 사기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제공하는 꿈들은 악몽으로 바뀔 것입니다. 마침내 악한 죄성에 병든 사람들은 구세주를 찾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지치고 갈 바를 몰라 헤매는 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소조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업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찾으시는 구세주는 그분을 찾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는 우악한 죄인들을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운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주님의 용서는 풍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8~9절)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큼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파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삼하 7:8~9)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이미 자는 죄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진리와 진정한 사랑, 행복,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

수요일예배 메시지(2008. 9. 24.)



(요한계시록 5:6~14)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사람들은 아마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매우 분주하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실로 중요한 것들이냐? 대답은 "아니오"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문은 한 단어로 설명한다. 어린 양!(계 5:6-8) 양은 율례부터 약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더군다나 어린 양은 더 약하다. 따라서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은 분명 관심 밖

이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임을 강조한다. 어린 양이 천국에서 행해지는 모든 찬송의 주제가 때문이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송의 제목이다. 이것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외쳤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희생제물되신 어린 양이시다.(히 10:4,9-10)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어야만 한다.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1)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약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것이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겼었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3) 어린 양을 통해서만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고난(십자가)을 통해 얻어 졌다.(히 2:10-11)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계 5:9) 창조주이신 어린 양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부활하심에 찬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계 5:12)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받았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모든 피조물은 찬양할 것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계 5:13)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점이 전부였다.(사 53:2)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잡힐 때 모든 팔박을 다 받으며 고통스럽게 죽으셨다.(사 53:3-7)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영광을 돌렸다.(빌 2:11) 부활하신 어린 양께 모든 초점을 맞추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십자가의 중심에 어린 양이 계셨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린 양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비아냥거렸다. 우리도 이 사람들 중에 있지 않나? 어린 양을 보면 할 때 우리는 가장 그리고 영원히 비참하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악함을 모두 회개하자. 어린 양은 기록하신 창조주이시다. 어린 양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드리자.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세상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어린 양을 모시어 돌리며 그분을 찬양하자. 죄인들啊! 바로 나를 위해서 날카롭고 긴 가시관을 쓰시고, 굵은 대못으로 뚫린 어린 양의 손과 발을 붙들자.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 하더라"(계 5:14) 아멘.

마가복음 강해 38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 예식, 축제, 역사는 공허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만든다. 이것들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인격자가 되려고 한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기 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항상 우선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간조해서 다시 말씀하신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막 7:14)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간조해서 전하시는 말씀은 이것이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막 7:15-16) 우리의 생각과 결심으로 우리가 깨우쳐질 수 없다.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롬 14:17)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전 8:8) 원죄로 오염된 우리를 더욱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 만든 전통과 예식, 축제와 역사이다.(막 7:20) 따라서 깨끗함을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말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중하자.(고전 7:19)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을 다 동일 할지라도 죄로 인한 오염과 영원한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나의 경건, 정의, 공로 등 자신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마음에서 쫓아 내지 못한 형태로 나오는 악한 생각(막 7:21-22)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혈뿐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레 17:11)

아직도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믿는가? 이것은 착각이다. 이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지 못하게 만든다 (7:14-23)

1:21) 겐으로 깨끗한 것처럼 치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악할뿐이다.(창 6:5)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느니라"(막 7:23)는 예수님의 말씀대로이다. 그러나 정결한 삶을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전통과 예식, 축제와 역사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자신이 철저히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만 커져야 한다. 보혈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끗여야 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자.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벧전 3:4)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영혼이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벧전 1:23)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새 사람이 되자. 십자가를 붙들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된다.(엡 4:23-24) 깨끗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 고민하지 말자. "더럽게? 언제? 무엇?"의 생각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낼 뿐이다. 거짓된 자신이다. 이러한 모든 옛사람과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자.(골 3:9-10) 오직 하늘의 것들에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광을 소망하자.(골 3:1-4)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거룩한 땅에서

성교를 떠날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까?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설렌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크신 뜻에 도우로 사용하시는 일 또한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준비하게 된다.

사역지로 가는 중에 차창 너머 보이는 푸른 초원에 가족들이 한가로이 풀을 먹고 있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감상적인 생각은 잠시일뿐, 몇 시간을 차로 달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뜨거운 햇빛과 흙먼지 바람만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다. 예비하신 영혼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걱정만이 앞섰다. 도착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은 곧 나와 나의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룩한 땅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우리는 한 마을을 찾았다. 노방전도와 축조전도로 2~3초토 나 뒤어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사실이 너무나 기뻐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 주었고, 영접기도까지 잘 받아 주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멀리 나무 숲 사이로 아이들 여럿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구절을 더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마친 뒤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하여 기억하도록 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열심히 따라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를 같았다.

다음 날 우리는 한 마을로 갔다. 마을 사람의 인도로 어느 입산부 가정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자 그녀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가족은 얼마 전 이웃 나라에서 이주해 왔으며 현재 무척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다음 날에 주님은 통통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해 주셨다. 관절이 한 통아 양쪽 무릎이 많이 부어 고동소리위 보였으나 할머니는 우리의 믿어주고 친절하게 대접해 주셨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할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아침부터 검은 구름이 보이더니 빗방울이 몇 차례 오락가락 하여도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려는 마음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성령님은 흠먼지 바람조도도 개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확신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꼭 축복해 주시리라 믿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공명에서도 우리는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도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리라!'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난다. 이제 이곳을 떠나려하니 아쉬움만 남는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좀더 많이 전했어야 했는데, 좀더 자기 부인을 했어야 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회개의 마음뿐이다.

신정호(잠사, 10교구 2지역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선교사역에 동참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선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선교를 갈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공부와 선교를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에 족쇄였습니. 하지만 주님께서 그 족쇄들을 단번에 풀어주시고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선교지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구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거센 풍랑 가운데에서도 저를 선교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 다. 내태와 게으름은 저의 기도를 막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기간부터 저희 팀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셨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현지의 기후 등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팀원들 사이에 평안을 주시고 선교지의 영혼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도 있었습니. 하지만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우리 팀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주님께선 얼마나 선교지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었고,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들도 있었습니. 저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찬양할 때 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단기선교를 마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역 가운데 은혜 부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김재경(학생, 고등부 3팀)

석류 알처럼

빛나는 영혼들이

열매 맺기를



어제 정장에서 너무 냉담한 현지 사정을 본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기도를 마친 우리는 사역지로 향했다. 어느 마을 어귀에 도착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한 후 조별로 축조전도를 시작했다. 석류가 빨갛게 익어 주렁주렁 맺힌 어느 마당가에 들어가자 젊은 부부가 우리를 맞이해 맞아 주었다. 어제 정장 때와는 달리 너무 반갑게 반겨주니 내심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길을 열어 주신 성령님께 감사했다. 거실로 안내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한 후 우리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두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 후 영접기도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직접 소리 내어 읽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였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그들의 손을 잡고 감사의 포시를 한 다음 우리말로 함께 기도하였다.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기도가 끝나자 부인이 우리에게 남편과 담소를 나누라고 한 뒤 밖으로 나갔다.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나가 보니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너무나 고마웠지만 부부의 간청을 정중히 거절하고 집을 나서는데 부인이 마당의 석류 나무로 가서 잘 익은 석류를 따 주었다. 이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 난생 처음 석류를 먹어 볼 수 있었다. 달콤하면서도 알싸한 맛이 정말 맛있었다. 주인 내외의 마음을 읽는 듯 상쾌했다. 알알이 박힌 석류 알처럼 빛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익어 가려 얼마나 좋을까! 성령님께서 이곳에 뿌려진 복을 통하여 석류 알처럼 빛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정말로 이곳에 이들 부부를 통하여 석류 같은 물 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김영준(잠사, 17교구 5지역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5일(월)-9월 23일(화)	16교구 6지역	박성명
9월 16일(화)-9월 24일(수)	17교구 8지역	박찬욱
9월 18일(목)-9월 26일(금)	8교구 1지역	이기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2일(월)-9월 30일(화)	1교구 5지역	구원석
9월 25일(목)-10월 3일(금)	1교구 1지역	이승득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월)-10월 7일(화)	20교구 5지역	김기홍
9월 30일(화)-10월 7일(화)	14교구 9지역	최우주
10월 2일(목)-10월 9일(목)	5교구 1지역	김옥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때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부동산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어디다 집을 사면 더 많이 오를까?' 고민하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이렇게 안한편 바보처럼만은 사회적 분위기를 쫓아 사서 재산과 타협하고, 나와 타협하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매주기 재앙(을 2'25)만큼이나 처참했다. 돈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황폐해져버린 것이다. 마치 풍요로운 포도주에 취해 하나님을 떠나 매주기 재앙을 당한 유다 백성파도 같았다. 돈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나 죄책감과 낙심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때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나를 건져주셨다.(을 2:12~13) 빛을 갈기 위해 이사를 가게 되면서 주님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다.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만 의지해서 사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을 알게 되었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동안 죄책감과 낙심으로 혼란했던 구원의 확신도 깨닫게 하셨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것과 또 성령께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황폐해진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음을 알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던 것도 잠시, 나도 모르게 예전의 황량하고 허무했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내게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떠날려가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 재앙인지를 알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통해서 지난 몇 년간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그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김수진(집사, 청년2부)

변화

아이들이 한두 살 때, 시부모님의 권유로 구역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시다. 세상살이에 늘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나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살면서 내도 모르는 사이 아이들이 남에게 소홀했습시다. 아이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시다. 저는 아이들을 설득하고 달래도 보고 제 변화시키려고 하였습시다. 하지만 힘든 상황은 계속되었고, 저는 스트레스와 위와 머리, 어깨가 아프면서 얼굴은 검어져 갔습시다.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과 마찰을 일으킨 채 집으로 왔습시다. 저는 아이와 함께 울면서 '엄마도 많이 힘들지만 교회에 나가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했습시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시다. 몇 주 후, 아들은 예배를 드린 후에 '엄마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라고 저에게 물었습시다.

그후 아들은 바뀌었습니다. 활기차게 생활하였고, 신앙생활과 공부에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정말 나의 아이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 앞에 저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저를 주님은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수 있게 되길,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최옥현(집사, 4교구)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회교집환인 '류교당담체잡자' (MPS)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치료방법이 없으나 치료방법이 곧 나를 것이나 기다리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청원벽력 같은 말에 온 몸이 무너져 내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눈물과 절망으로 며칠을 보내던 중 주님은 나에게 새벽기도회에 나가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날부터 나는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는 말씀을 품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 답답했던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그동안 나는 하고 하면서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했나?'를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다. 세상과 타협하고 내 편안함을 위해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그저 최후한 마음뿐이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라' 그냥 두지 않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 단일한 신앙생활을 해 오던 나와 우리 가족에게 주께로 더 가까이 부르짖고자 재확인하는구나!'라는 사심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4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고, 태연이는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다. 끝까지 부르는 찬송은 하나도 없지만 태연이는 "예수께로 가련", "예수 사랑하심", "꼭뜨네" 등의 찬송을 좋아하고, 성경읽기 때도 좋아한다. 병원의 치료실 선생님께서도 "혹시, 아빠가 목사님이세요?"라고 물을 정도이다. 물론 아직 태연이의 병은 진행중이다. 굵어진 팔과 손가락, 불룩 튀어나온 배, 뒤통뒤통 같은 걸음걸이, 외형적으로나 자적으로 병색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그저 기도하면서 하루 속히 치료제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한다. 이렇게라도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 주고 있으리..... 태연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에 나는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태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이시는 주님! 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정현정(집사, 18교구)

기도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법제만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어서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시다.

주님의 사랑을 몰라 원망하고

세상의 어려움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태어나게 하셨나요?'

원망과 타락으로 세상의 기쁨만 찾아 예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동안 언제나 주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줄 몰랐습시다.

주님, 예전에 어리석고 미련하였던 저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매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걸 내 자신이 놀라고 있는데,

우리 가정도 함께 주님의 보혈을 깨닫고 함께 할 거예요.

주님! 기다려 주세요.

남편과 아들이 함께 주님 전에 열드려 회개하고

감사기도하며 예배드릴 줄 믿습시다.

주님! 늘 말씀 안에서 살며 성령에 불들려서 살며 감사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아멘."으로 답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은실(성도, 새가족양육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예바다부



이형수(장로, 예바다부장)

예바다부는 주일만 되면 소란스럽다.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적막이 흐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주일의 예바다부는 일주일 만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며 예배 드리며 말씀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쾌활함과 만족함과 기대감이 넘쳐난다.

제2교육관 1층에서 모이는 예바다부는 오전 9시에 학생부 예배로 시작한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10~15명 정도가 매주일 출석하고 있다. 오후 12시 50분에는 성인반 집회로 모인다. 주일3부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고 120여 명이 모인다. 주로 서울 외곽에 살며, 청년부터 90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모인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한주일 내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교회에 오기에 대부분 아주 일찍 온다. 늦는 사람이 거의 없다. 주일3부예배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바다부에 모여드는 이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한 웃음과 넘치는 기쁨을 안고 들어선다. 예배가 끝나면 반별로 나누어져 교사들과 그날의 말씀 중심으로 문답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들은 모두 수화를 통해 농아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현재 예바다부는 전임목사님과 경원진과 농아인을 합쳐 54명의 교사가 있다. 그래서 매년 봄과 가을에는 수화교실을 연다. 초·중·고급반과 통역반으로 구분된 이 수화교실에는 수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빈다.

예바다부의 예배나 집회에는 수화전문 통역자가 있어 모든 내용을 통시통역한다. 공예배 및 집회시에도 모두 수화로 통역을 한다. 특히 주일3부예배 시에는 본당 2층 좌측, 지정좌석 앞에 있는 대형 수화 통역용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수화를 보며 예배를 드린다. 농아인들은 교회의 이러한 배려에 늘 감사, 감사할 뿐이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중심의 말씀만 전한 결과는 예배나 집회시간에 보이는 자들의 태도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스포츠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다. 이들 중 대부분이 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석하며, 매년 10~15명 정도가 세례를 받는다. 또한 학생시절부터 나오던 농아인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예바다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전한 복음의 결실일 것이다.

예바다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예바다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다. 예바다부의 성도들은 주일 외에는 말씀을 접하고 들을 기회가 거의 없기에 교사들은 한 말씀이라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간간히 쓴다. 그래서 성경소기, 성경암송, 성경감상, 성경퀴즈 등 말씀 중심의 모든 행사들을 할 때에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실제적으로 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롬 5:1~2)이 말씀 가운데 살아 있음(히 4:11~12)을 느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는 말씀이 예바다부의 농아인 형제 자매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심자의 길

기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

-앤드루 머레이(Andrew Murray)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로 많이 인용한다. 이것이 나의 기도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특별한 어떤 구절을 감동해 주시면 나는 즉시 그 말씀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 습관으로 인하여 나의 신앙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욱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에 더욱 일치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배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이상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굳은 확신(요일 5:14)을 또한 가지게 되었다.

기도는 불과 같다.

불이란 좋은 연료가 공급되어야만 불 피어 오른다.

기도의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읽어서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음 속에 새겨져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씨앗에 대해서 잘 안다.

자그마한 씨앗 속에는 큰 아몬드 나무의 생명의 힘이 잠재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씨앗과 같다.(벧전 1:23)

모두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다.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사랑하고 명상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믿어주고 성장하여

마침내 의의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말씀을 심사숙고하라.

비록 지금은 나의 마음이 차갑고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속에서 활동하여

그 마음에 약속한 대로 의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새 예루살렘을 그리며!



2006년 12월 '은빛자 사상식'이 있던 날 위임목사님께서 "여러분은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남은 여생을 봉사하십시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은빛자와 65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시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으세요."라는 격려적인 광고를 하셨다. 나는 당시 위임목사님의 지혜에, 아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묘하신 충현교회에 대한 맞춤형 설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모든 이에게 충현교회 예루살렘 찬양대를 자랑하며 놀라운 신 지혜의 성령께서 위임목사님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이후 2007년 1월부터 금요찬양집회 때 예루살렘 찬양대는 위임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에도 힘입어 날로 날로 좋은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남·녀 대원들의 모습은 마치 성도 예수님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변화해 있는 것 같고, 남성대원들의 멋진 소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로우신지..... 매년 찬양 연합하기 전에 우리는 온 교회의 환우들을 위한 통성기도 시간을 갖는다. 예루살렘 찬양대 주보 한 편을 가득 메운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250여 명의 찬양대원은 한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는다. 그분들의 폐유를 위하여가 아닌 '주님이시여, 뜻을 이루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시오.'라고 말이다. 특히 육체에 연약함을 간직한 채 혼신을 다하여 십자가 복음을 외치시는 위임목사님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대원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드린다.

충현교회의 복음사역 역사가 그러하듯 우리 모두는 50여 년간을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영육이 성장하여 왔다. 이제 노년의 때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다가 천국 찬양대원으로 영원히 서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 본다. 할렐루야! 아멘.

백희숙(은빛자, 예루살렘 찬양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70	김해연	25	청년1부	박무비(23)
1671	김민영	12	청년1부	강석분(12)
1672	몽크체체	25	외선부	최규태(2)
1673	바이라	25	외선부	윤호준(16)
1674	란리이	25	외선부	백경옥(24)
1675	변종식	2	청년1부	
1676	란리이	25	외선부	백경옥(24)
1677	조근아	11	청년3부	석규수(20)
1678	이은하	1	장년2부	
1679	한이름	13	청년1부	함정희(13)
1680	김현진	15	대학부	박미순(15)
1681	지진진	17	중등3부	김진홍(16)
1682	한은혜	17	중등3부	정예림(17)
1683	정소윤	17	중등3부	정예림(17)
1684	김미경	7	청년1부	최미지(7)
1685	정미진	1	청년1부	임은혜(1)
1686	김영일	18	청년1부	김영진(20)
1687	임희랑	18	청년1부	문현정(14)
1688	남수진	4	소방부	이미지(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모 實

1. 남·녀 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28일(오늘) 15:10
장소: 1지회-405호
2지회-408호
3지회-409호
4지회-410호
2. 안수집사 월례회
일시: 10월 6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갈릴리움

200

1. **한민회** 박정호(전남)는 1951년 12월 15일 13살로 군포에서 19월 19일, 21살로 장흥에서
 2. **김희태** 박정호(전남)와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3. **조준호**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4. **박복선**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11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5. **이희정**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6. **한민회** 박정호(전남)는 1951년 12월 15일 13살로 군포에서 19월 19일, 21살로 장흥에서
 7. **김희태** 박정호(전남)와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8. **조준호**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9. **박복선**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11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10. **이희정** 박정호(전남)는 장흥에서 모친·복합한 안두수의 5살로 군포에서 21월 21일, 23살로 장흥에서

2008 메시아 찬양 연습

일 시 : 9월 21일 ~ 12월 19일
매주 일 18:10
장 소 : 나사렛홀
대 상 : 모든 찬양대원

통절기 저녁예배 시간변경

10월 8일부터 수요2부예배 및 금요찬양집회 시간을 저녁 7시로 변경합니다.
(금요일 기도원집회 시간도 저녁 10시 30분으로 변경)

충현동산 평토전

추천동산 팹투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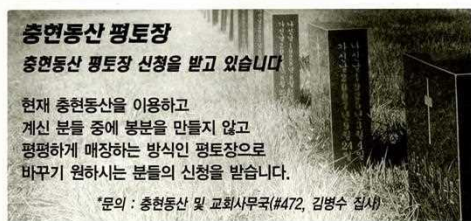
현재 충현동산을 이용하

계신 분들 중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방식인 평토장으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 충현동산 및 교회사무국(#472, 김병수 집)



10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임

연도	일	주일예배 (장로)					천양예배 (만수진사)	수요예배 (문사)	
		I	II	III	IV	V		I	II
10	5	신신길	엄복섭	김승근	장철규	김태식	박원화	안숙자	서덕순
	12	차신동	김영달	함철주	이보신	이창호	박석산	최옥순	배영진
	19	김신국	전용승	전학래	최윤덕	오승도	박성운	최희문	정철호
	26	조주환	김성조	박덕양	이상재	조중민	김태식	장선복	임홍숙

새벽기도회 (9/29~10/5)

	9/29 (월)	9/30 (화)	10/1 (수)	10/2 (목)	10/3 (금)	10/4 (토)	10/5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태동	최강진/최영인	이희식/김성현	이광현/김 광	강호성/안병택	윤요한/홍순애	최강진/김연식
성 교 분 부	말 7:31-37	골 14:1-11	골 14:12-23	골 15:1-8	골 16:1-14	골 16:15-22	골 16:23-34

예배 담당 (10/1~10/5)

날짜	예배	설교	사회	찬양
10/1	수요 I	현숙한 여인 (잠 31:10) 김성관 목사	이희석 최화자	갈라디안 향유를 주께 드린 (호산나 찬양대)
10/1	수요 II	예수께 나아가 (벧전 2:1-5) 박용원 목사	김창성 김필순	예수 앞에 나오면 (실로암 찬양대)
10/3	금요일	찬양과 묵상	김준희	예루살렘 찬양대 / 성령만 안수식 가곡 / 바리새 오소리
10/5	주일 I	여호와를 찾으니 (사 55:6-9) 윤요한 목사	박준식 신진길	예배 전 집안
10/5	주일 II	여호와를 찾으니 (사 55:6-9) 강 훈 목사	정준식 엄복삼	그런 길을 행하시라 / 소프라노 안성희(임마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10/5	주일 III	여호와를 찾으니 (사 55:6-9) 김성관 목사	김준성 김은진	기쁨 기쁨 기쁨 / 뭇꽃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10/5	주일 IV	여호와를 찾으니 (사 55:6-9) 이재영 목사	윤수일 장철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알토 이상민(할렐루야 찬양대 솔로리스트)
10/5	주일 V	여호와를 찾으니 (사 55:6-9) 양철웅 목사	이재원 김대식	우리 주 십자가 / 테너 이정덕(한일 찬양대 솔로리스트)
10/5	주일일양	갠세마비 (마 26:36-64) 김성관 목사	유정환 박희철	안수집사 중창단 / 만도린 연주대 11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후 9:00	본 당
	III (수화, 외국국 동성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국 동성복역 예배)	본 당
	V (젊은이거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금요일강림절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집회	저녁 11:00	금요일장미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어 및 주일학교 2부 3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중국어, 한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인도어, 인도네시아어 및 토공통입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Bible Church of Christ, S. S. Lan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00 11:00~11:4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초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초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8호
중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3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5-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장년 4부	오후 1:30	바나나 홀
소망부	오후 12:15	간담회 홀
사할부	오전 11:00	복귀전 지하홀
예배다부	오전 9:00(화성) 오후 1:00(영성)	제2교육관 1층
떡 아부	(수) 오전 8:30 ~ 9:00 (금) 저녁 7:00 ~ 저녁 9:30	선교관 1층
새가꾸양육부	오후 12:15	바나나 홀
국회헌정선교부	오전 11:00	야 맨 홀
출세헌정미리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지혜헌정미리교육	주간교육	출세미리교육

9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교회의 방패와 성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리고 영성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사문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가는 선교로, 보배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하여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듭나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시며 예수실천 전야를 통하여 금강산장회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통성하게 하소서.
- ⑦ 충현의 재단(유지·통산·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님과 함께 추진 중인 영육을, 남일 시설 건립과 수양장 완공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를 통하여 자기를 부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들을 마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총동원 전도진회

부 시	일 시	장 소
14교구	9월 28일(오늘), 14:00	베다니홀
19교구	9월 28일(오늘), 14:00	제2교육관 2층 A홀
20교구	9월 28일(오늘), 14:00	갈릴리움
24교구	9월 28일(오늘), 14:00	제2교육관 4층
청년2부	9월 28일(오늘),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1부	9월 28일(오늘), 12:20	제1교육관 507호
장년3부	9월 28일(오늘), 12:20	제1교육관 307호
장년4부	9월 28일(오늘), 15:10	베다니홀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록 시					
신숙시	정호진	김익현	장 준	이희식	
12월 2주	고우현(1월 1주)	3.2주	4.2주	7.2주	
김영철	안치현	정준신	양세훈	이진	
12월 3주	5.2주	2.2주	18.2주	환진	6.2주
이동현	이재민	윤은아	전성준	유재진	
12월 4주	1.2주	13.2주	10.2주	20.2주	1.2주(1월 1주)
이대영	김정우	양성진	홍지현	박정현	
12월 5주	14.2주	최성준	최정진	박우현	강현철
최준식	김찬주	22.2주	24.2주	24.2주	9.2주
12월 6주	이정현	강호성	윤소현	김근재	박준식
12월 7주	19.2주	21.2주	15.2주	17.2주	8.2주
정영은	최진정	25.2주	김정성	이재현	

■ 강도사 신범식

출생연도	출생지	학력	직업	
■ 어진지				
윤인숙	김연직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1920년	1920년	5.20	2.20	1.60
2002년				
■ 남태				
김정연	이복순	최순복	전은희	김정자
1920년	1921년	12.27	12.01	14.20
■ 박정				
김영희	김복순	류인희	한서진	임태주
1.20	4.20	1.20	1.20	17.20
■ 박정				
김영미	이복순	김정희	전영희	이혜숙
22.20	11.20	11.20	12.20	6.20
■ 최철환				
황완준	김정운	강국원	정원일	
13.20	3.20	1.20	23.20	
■ 이서영				
이정호	서준진	김연직		
1.20	1.20			
■ 전영희				
전영희	김순진	전영민주	장희희	노은영
1.20	1.20			
■ 신 고				
신 고	사 송요한			